

민주 대선 경선 '분수령'...1차 슈퍼위크 64만 표심 촉각

뉴스초점 - 선거인단 투표

오는 12일 강원지역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차 선거인단 투표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4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의 향배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 선거인단 투표가 마감되는 오는 12일 오후까지 지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지지를 확보한다면 조기에 본선 직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 26일 호남지역 경선이 남았지만 대세론이 강고해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가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전, 이 지사의 과반 지지를 저지하고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리 대로 좁힌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추석 연휴 직후

12일 강원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 경선 향배 사실상 결정될 듯 이재명 과반이나 이낙연 추격이나...3위 노리는 주자들도 총력전

에 치러지는 호남지역 경선 결과가 경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순회경선에서의 과반 승리로 대세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충청권 선거인단(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 현장투표)은 총 7만6623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200만명(추정)의 4%에 불과,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사퇴 처리 불가 방침에도 이날 국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원회관의 짐을 빼고 보좌진 면직 처리에 나서는 등 배수진을 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원직 사퇴는 (여론의

반전을)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저의 결의의 표시"라며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 의원직 사퇴 배경에 대해 "현재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불안해 모든 것을 던져 잘못된 선택을 막을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진영에서는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이 사실상 정계은퇴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불안한 후보는 안 된다'는 이 전 대표의 절박한 호소가 전체 선거인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소 10%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 진영에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카드가 전체적인 경선 판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직 사퇴 자체가 국민적 감동을 주는 카드가 아닌데다 이미 판을 뒤집기는 늦었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대표가 '불안한 후보'라고 직격탄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서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경기지사와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주어진 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정권재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며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며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캠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대표 등 3위를 노리는 후보 주자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3위 경쟁에서 밀린다면 다시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위권에 처친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반전의 계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후보

주자들이 의외의 선전을 한다면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의 과반 득표가 어려워지면서 경선 흥행이 가열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예비후보들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1차 선거인단 투표율도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65.84% (42만2614명)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12일까지 자동응답(ARS) 전화투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최종 투표율(71.6%)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원직 사퇴 등 당내 경선이 가열되면서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과연 당이 원·팀으로 뭉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대세론이 조기에 자리 잡는다면 일부 후보들의 중도 사퇴와 경선 흥행 저조 등으로 대선을 치를 동력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추석 선물용 과일 출하 9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에서 도매인들이 출하된 추석용 과일을 검매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외국인 고용사업장발 코로나 확산

누적 확진자 50명 넘어서

광주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 참여 인원이 2만명,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외국인은 6명, 내국인 4명 등 모두 10명이 신규 확진됐

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 관련 5명,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1명, 북구 모 중학교 관련 1명, 경기와 서울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1명이었다.

지난 3일 시작된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에서는 현재 2만719명이 참여해 51명이 양성 판

정을 받았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린 진단 검사 행정명령 기간은 10일까지다. 8월 이후 광주 확진자 964명 중 253명(26.2%), 8일부터 이틀간 32명 중 19명은 외국인이었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수·무안 각 2명, 순천·광양·나주·해남 각 1명 등 모두 8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782명으로 늘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이 민간공항 통합의 변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군공항 연계 확정 고시될 듯

정부가 확정·고시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통합 시기'는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군공항 이전이 공항 통합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다. 광주시가 과거 조건 없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이전하기로 했다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무산된 바 있어 양 사·도간 공항 통합 논의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같은 정부계획에 반발했으나(광주일보 2021년 8월 18일자 1면) 문구의 수정은 없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계획 확정·고시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늦어도 추석 연휴 직후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의 관심은 국토부가 조만간 확정 지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가운데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 이전'을 다룬 대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공개한 계획안에서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

합 추진하겠다"며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이라고 적었다.

이는 제5차 계획에서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하며 지자체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 시기를 검토"라고 적은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국토부가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시기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자 전남도, 지역정치권이 즉각 반발했으나 국토부의 방침 수정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공항, 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는 원안 그대로 제출했다"며 "통상 위원회 심의가 가부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당초 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대로라면 올해 두 공항을 통합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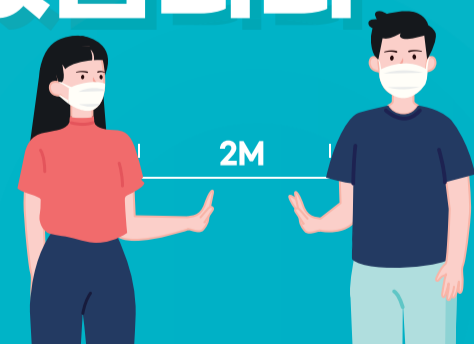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멈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전

1. 사전 예약하기
2.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예방접종기관에 알린 후 예방접종 연기하기
3.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받음 부위가 잘 보이는 옷을 준비

예방접종 시

1. 마스크 착용하기
2.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기

예방접종 후

1.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하기
2.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접종 후 최소 3일 주의 깊게 관찰하기